

한화, 다문화 아이들에 평창올림픽 티켓 선물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수업’ 진행
김승연 회장 적극 동참 의지 보여

한화그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다문화 가정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수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지구촌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오는 불꽃클래스 수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그룹이 지구촌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수업’을 진행했다.



한화그룹이 지구촌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수업’을 진행했다. /한화그룹

만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한화와 조직위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국립맹학교, 인천 백령초등학교, 거제 일운초등학교 등 다문화 센터, 장애학교, DMZ에 위치한 학교 등 7개 학교와 교육박람회 등 총 14회에 걸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화그룹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티켓 구매 및 기증, 성화봉 제작, 불꽃축제 지원 등 적극적인 후원과 범업에 나서고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다음 달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는 행사인 만큼 우리도 적극 동참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일동제약 강원도 어린이들에 ‘지큐랩 키즈’ 선물

일동제약은 강원도 횡성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2200여만원 상당의 자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지큐랩 키즈(사진)’를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등과 같이 우리 몸 속에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익균을 말한다.

일동제약은 강원도 횡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강원도가 추진하는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

횡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에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제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하는 어린이들이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추운 겨울,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잘 먹고,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은 강원도가 지역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KT스카이라이프 임직원 릴레이 기부 캠페인

KT스카이라이프는 임직원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임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사랑의 1004’ 모금 캠페인,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 헌혈, 방한복 기부 등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지속 시행해왔다.

‘사랑의 1004(천사) 캠페인’은 ‘한 달에 한 번 천사가 되는 날’을 슬로건으로, 연초 임직원들에게 저금통을 나눠주고 매달 14일에 1400원을 자유롭게 모금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모금액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KT스카이라이프는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카페모아’ 커피전문점에 책 300권을 기증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한 ‘카페모아’에 KT스카이라이프는 ‘책 모으기’ 캠페인으로 필요한 도서를 꾸준히 기부할 방침이다.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고, 쪽방촌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방한복을 기증하기도 했다.



‘사랑의 1004’ 모금 캠페인.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김나인 기자 silkni@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에 아침식사 제공

CJ대한통운은 8일 전국 현장을 찾아가 구상원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달려라 밥차’ 올해 첫 행사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의 ‘달려라 밥차’는 2010년에 시작해 지난 8년간 450회 이상 진행하며 총 3만5000여 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CJ대한통운 차동호 부사장과 신동휘 부사장(오른쪽 첫번째부터)이 택배기사들에게 아침식사를 배식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신점[神占] 운세 1월 9일 (음 11월 23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72년생 주색을 조심할 때입니다. 84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96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습니다.
- 소** 61년생 대만족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습니다. 73년생 내 자신을 추스르세요. 85년생 자존심에 얽매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97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 호랑이** 50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2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74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세요. 86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 토끼** 51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63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75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87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기 사람들이 따릅니다.
- 원숭이** 52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64년생 소송은 불길합니다. 타협하세요. 76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88년생 파트너와 불화 있겠습니다.
- 뱀** 53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89년생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 말** 54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6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8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0년생 뒷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 양** 55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67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79년생 흑백을 가리키는 힘듭니다. 91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민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 원숭이** 56년생 소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68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80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92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 닭** 5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69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81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3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 개** 5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법입니다. 70년생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8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94년생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은 금물,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 돼지** 59년생 주위와 협동하세요. 71년생 무작정 벌인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법. 83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세요.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1	4	7
			7	3				9		6
		9			6				1	
		8		7	3	6				
				9	2			5		
	3	7		5	8					9
	2		1					3		
	1	4								

		8								6
			2	6			3	5		
					5	9	8			
3		6						8		9
		2								5
9			4					3		2
					1	7	2			
				7	8		4	1		
		6								8

스도쿠 정답

5	9	2	7	6	5	1	8			
8	1	6	9	3	2	4	7	5	8	6
1	6	7	8	5	2	1	4	9		
7	8	5	1	2	6	9	3			
6	2	9	4	1	5	8	7			
4	1	2	9	7	8	6	5	3		
9	5	6	2	4	1	8	7			
2	7	1	5	8	9	2	6			
3	4	8	6	1	7	9	2	5		
4	8	2	6	5	1	9	7			
5	4	1	7	9	8	2	6			
9	7	6	2	1	5	4	8			
2	1	4	9	8	2	7	5			
7	5	9	1	4	6	8	2			
6	2	8	5	2	7	9	1			
1	2	1	8	6	5	4	9			
8	6	5	1	7	9	2	1			
4	9	7	1	2	6	8	5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결혼이 늦은 것이 좋은 백호살 사주

여자가 직업이 있거나 하여 경제적 문제가 자력 적으로 해결되게 되면 남자에게 일생을 위탁하는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옛날에야 가족의 개념 자체가 경제공동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존재 이유이기도 했던 것이어서 일정 나이가 되어 부모 밑에 있는 것은 몹시 불쌍 사나운 일이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짝을 만나지 못해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 상담을 온 서너 명의 아가씨들은 한결 같이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재능이 뛰어나 프리랜서를 뛰고 있는 골드미스들이었다. 외모도 다들 빠지는 데가 없었다. 주변에서는 눈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들 한다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들의 결혼이 늦은 것은 본인들의 사주명조에 결혼이 쉽지 않은 기운이 함양 되어 있음을 일반적인 상식과 견해로는 파악해내기 쉽지가 않다. 눈이 높다든 말 밖에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 중의 한 아가씨는 75년생 9월이었는데 배우자 자리에 흉살이 자리 잡고 있는 백호살의 소유자였다. 지지에 형살도 있으니 자기 고집도 센 편이라고 봐야한다. 남자 집안 입장에서 꺼려하는 신살 중의 하나이다. 흰 호랑이의 강한 기운이 남편 자리를 우선적으로 친다는 통념 때문이다. 이 신 살이 남자에게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 발전이 있기도 하지만 가부장 사회에 있어서 여자에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강한 신 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에 특히나 양반들은 사주를 미리 맞추어 보고 혼사를 정했던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해 생일을 살짝 바꾸는 일까지도 있었다 한다. 이 아가씨의 경우 결혼이 늦은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백호살의 기질로 인해 스스로도 강한 부분이 있지만 흑여 남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참지 못하고 강하게 분노하므로 부부간의 화합이 힘들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좀 더 나이를 먹고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좀 부드러운 연후에 사람을 만난다면 성년 풀기가 좀 숨죽여진다. 다행히 내년부터 바뀌는 대운은 백호살을 설기시키는 기운이자 자신에게는 관운(官運)이 되니 분명 지금까지에 비해 매사 부드러워지는 모습으로 마음자리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모습에 주변에서도 사람을 소개시켜줄 인연도 생기는 것이니 결혼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